



2021년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입시 자료집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어문학과 학생회 집행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100,
5호관 남쪽 066호 (5S066, 한국어문학과 학생회실)

INHA for the Talent 인하와 성장하는 인재,
미래사회 핵심인재 Talent for the future

가능성과 열정을 가진 당신,
인하의 탄탄한 지원, 탁월한 교육과 만나
미래사회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My Brand INHA, 인하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TOP 3

취업률, 유지취업률

졸업자 3천명 이상 30개교(대학정보공시)
한국교육개발원 발표 2차 공시일자 기준

TOP 4

2019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 학생 성과 4위

71억

교육부 선정 대학혁신 지원사업
2차년도 사업비

ACE+

대학자율 역량강화 사업 선정
기초교양교육강화, 4년간 90억원 지원



| 당신의 꿈을 세계에서 펼칠 수 있도록

교환학생(장기/학기제)

해외 자매대학에 파견되어 정규학기 전공과목 또는 교양과목을 공부하는 프로그램

해외지역연구

하계, 동계방학 중 해외 대학에 파견되어 어학연수 및 현지 문화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

해외대학 복수학위제

우리 대학(2년)과 해외 자매대학(2년) 수학 후 양쪽 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미국IIT)



| 인하의 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인하 국토 대장정

20여일간 약 540km 구간의 국토를 직접 걸으며 국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극기와 인내, 협동과 배려의 인격 함양

인하 멘토링

인천지역의 희망 학교를 방문하여 멘티들과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BOOK 돌음

4가지 독서 프로그램으로 인문학적 감성 함양



| 인하에서의 배움이 당신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졸업 선배들과 재학생이 기업 별, 직무 별 멘토링 데이를 실시하여 1:1 컨설팅 제공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1~2개월간 수련생 신분으로 기업의 직무를 체험하고 지원금과 학점을 취득

취업스터디

분야별 희망 기업군에 맞게 스터디를 나누어 각 희망 기업 취업(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해외/외국계 기업)에 필요한 구체적 스킬을 순차적으로 준비



| 당신의 목표에 인하가 함께 하기 위해

스타트업 멘토링 데이

창업 동아리 및 예비 창업자가 멘토 분야(창업, 경영, 세무, 회계, 마케팅 등)를 선택하여 1:1 멘토링 실시

인하 스타트업 교육

창업에 필요한 창업 실무 교육 진행,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사례, 사업계획서 작성, 시장 조사 및 마케팅 전략, 발표용 사업 제안서 작성 등 발표 스킬 교육

소셜벤처 창업지원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2021년,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40주년

인하대학교 문과대학에서 배울 인문학적 소양은
기계문명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 사고와
인간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급변하는 시대를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갈 힘을 심어줄 것입니다.

인하대학교 문과대학의 우수성, 지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8 중앙일보 대학평가 인문계열 대학
종합순위 TOP 7

2019 중앙일보 대학평가 인문계열 대학
취업률 순위 TOP 6

문과대학 학생 시설물 안내

학생들을 위해 시대에 맞는 시설을 확충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대학이 해야 할 기본입니다. 문과대학의 인재들은 학생 시설물에서 꿈을 펼치고 내일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 문과대학 '아름라운지'

2020년 새롭게 조성된 문과대학 라운지, 아름라운지는 학생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학습과 모임 등의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모임을 위한 음향시설과 빔 프로젝터, 대형 스크린을 구비하였습니다.

창가 1인용 좌석과 독립적인 3~4인용 모임 좌석, 중앙의 다인용 좌석을 통해 학생 필요에 맞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1인용 좌석은 좌석 별 콘센트 마련으로 노트북 등 각종 디바이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출판사로부터 기증받은 도서가 전시되어 있으며 학생 건강을 생각하여 공기청정기도 비치하였습니다.



| 전공 강의실

각 학과 별 전공 강의실을 운영 중이며, 2020년 2월 한국어문학과 강의실의 신규 책걸상 배치로 교육환경의 질을 높였습니다. 사용 신청을 통해 학생 자치적 사용이 가능하며 시험기간에는 24시 개방하여 학생들의 면학실로 운영됩니다.



| 학과 학생회실

학과 학생들을 위한 자치, 자율 공간으로 휴식과 모임 등 다양한 목적의 장소로 활용됩니다. 한국어문학과 학생회실은 소파, 에어컨, 컴퓨터 등의 편의 설비와 모임을 위한 회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 문과대학 인문 스터디룸

2016년 리모델링을 통해 마련된 5호관 스터디룸은 학생 모임과 토의의 장소로 사용됩니다. 총 7개의 스터디룸이 있으며 최소 8명, 최대 20명까지 수용 가능한 스터디룸에서 팀 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생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문과대학 인문 독서실

5호관 지하에 마련된 인문 독서실은 2016년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약 100여개의 넉넉한 좌석과 문과대학의 관리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면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 사물함도 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과대학 프로그램 안내

인하대학교 문과대학은 매년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 상담과 다양한 진로지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문과대학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순간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의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 함께 할 것입니다.

2019 문과대학
직무멘토링

일시 : 2019.09.27(금) 15:00~18:00
장소 : 60주년 월천홀

문과대학
졸업생 멘토 소개

출신학과	회사명	직무
한국어문학과	지달에스비엔터테인먼트	그래픽디자이너
세학과	인민신문출판국	학예연구관
철학과	남양주경찰서	반오사/공무원(경찰직/경보직)
중국학과	현대백화점	경영기획
일본어문학과	Knowles corporation	한국계기업
영어영문학과	신원은행	금융보험
외국어영어문학과	SPC	광고
통번역학과	티몬	알뜰기획
문화콘텐츠학과	엔젤리타컴퍼니	영상제작
문화경영학과	행토스	온라인광고

★ 사전접수자 및 당일 참석자 소정의 기념품 증정
★사전접수 신청자에게는 Grazie 쿠폰 증정(9/26목요일)
자세한 사항은 문과대학 홈페이지 참조

문과대학
독도의 날
공모전

2019. 10. 25. ~ 2019. 11. 08.

공모주제

독도의 가치

작품의 범위

대상

공모분야

제출방법

일정

접수 : 10. 25. 금 ~ 11. 8. 금
발표 : 11. 14. 목 (17시 이후)
시상 : 11. 19. 화 (17시 50분 소강당)
(문과대학 학장 명의 상장 및 상금 수여)

상금

UCC : 4등(11명) 30만원
3등(11명) 20만원
2등(11명) 10만원
1등(11명) 50만원
인포그래픽 : 4등(11명) 20만원
3등(11명) 10만원
2등(11명) 50만원
캐치프레이즈 : 4등(11명) 10만원
3등(11명) 50만원

제출방법

캐치프레이즈 : 20자 이내
인포그래픽 : A2 사이즈 jpg, png
UCC : 1분 이내 mp4, wmv, h.264, avi 등
(*인포그래픽, UCC : 팀 지원 가능, 팀원 최대 2명)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 제 33대 문과대학 학생회 바이더문 공동주최

2018 문과대학
커리어 페스티벌

[2018.05.08 (화) ~ 2018.5.10 (목) 3일간]

Program

1) 부스 운영 전문 역설 상담(1:1) 및 Clinic(1:1)
2) 토크 콘서트 전문 교수, 전문가, 전문가 멘토링

(3일 : 문과대학 구성원 진로직업탐색)
* 3일 및 5일 10:30 ~ 18:00, 18:30 ~ 20:00

인하대학교

| 매년 새롭게 진행되는 공모전과 프로그램

문과대학은 매년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공모전, 초청 특강, 독서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인문적 감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과대학 프로그램 사례>

2018년 취업특강 - MBC 아나운서 초청 특강 안내

2019년 <독도의 날> 공모전

2019년 문과대학 동문회 지원 해외지역 탐방 프로젝트 공모전

2019년 문과대학 직무 멘토링

2020년 <문과대학 신입생 프리칼리지 인문독서 프로그램>



| 방학 인문당당 프로젝트 - 페이스 메이커

문과대학 재학생의 진로탐색 및 진로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의 자기 발견(가치, 흥미, 적성 등) 및 진로 로드맵 작성과 진로 목표 달성까지의 모든 과정을 학교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멘토링,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주기적인 일정과 과제 관리를 통해 진로 목표 성취를 지원합니다.



| 문과대학 커리어 페스티벌 & 인문사랑 멘토링 '동행'

매년 진행되는 문과대학 취업, 진로 행사로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진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행사기간동안 대학일자리센터 전문 상담사와의 1대 1 진로상담 부스 운영, 직업흥미검사, 진로적성상담, 해외취업 상담 등을 운영합니다. 커리어 페스티벌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동영상, SNS 등을 활용, 행사를 홍보 하고 전담지도교수 집중 상담 주간을 같이 운영하는 등 문과대학 전체 구성원이 함께 하는 축제처럼 진행됩니다. 행사에는 외부인사 특강과 문과대학 동문회가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멘토링 행사 '인문사랑 동행'이 마련됩니다.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2021년,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40주년
참된 지성과 혁신으로 INHA인문을 선도하는
한국어문학과에서는 한국어문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창조적 상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2018 중앙일보 대학평가 인문계열 학과별 순위 전국
국어국문학과에서 '중상' 평가 획득

한국어문학의 진취적 발걸음

40년간 이어져온 참된 지성과 혁신

1981

한국어문학과는 1981년 문과대학 설치와 함께 신설되었다.

한국어학, 한국고전문학, 한국현대문학, 한국학 등과 같은 다양한 한국어문학 연구를 다루며, 나아가 이를 현실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세부 전공에는 한국어학, 한국고전문학, 한국현대문학이 있다.

2005

본 학과는 1981년 국어국문학전공과로 출범한 뒤, 2005년도 3월 한국어문학 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어를 세계인의 시선에서 본 대한민국의 언어로 확대해 국제화 시대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2020

과거와 현재의 우리 모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인재,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기정체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설립 이래 오늘날까지 한국어문학과 관련된 폭넓은 지식과 역량을 갖춘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고 있다.

한국어문학과 인재상

글로벌 프런티어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교육의 중점

전문성

국어학·고전문학·현대문학 등 3개 주요 전공 분야가 구분, 학생들의 학문 활동 진작과 창작 능력 배양을 목표로 편성되어 기초학문과 실용학문의 조화로운 교육을 통해 한국어문학에 대한 보다 견실한 이해, 분석 및 응용 능력을 갖도록 한다.

국제화

세계적 시대에 미리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하면서 국제적 안목으로 한국학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도록 한다.

실용적 창의성

한국어문학 연구를 현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국어문에 대한 학식과 교양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창의성을 갖도록 한다.

한국어문학과 전공 세부영역

세부영역(Track)		내용		
한국어학	주요내용	한국어학은 한국어의 역사와 구조 그리고 언어 규범 등을 연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고대 국어부터 시작하여 현재 한국인이 사용하는 말까지의 모두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문법 구조, 언어의 역사적인 변천, 삶 속에서 언어의 쓰임새 등을 연구하며, 어학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심화 지식을 배양할 수 있다.		
	개설 교과목	한국어의 이해 말의 소리 단어 구성원리의 이해 옛글과 현대 언어문화	한국어의 문장구조 한국어의 역사 방언의 이해 옛말의 이해	한국어 연구와 응용 실용 글쓰기
	관련 전문분야	한국어학은 어학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더불어 실용 글쓰기, 한국어 연구와 응용 등의 과목을 교육하고 출판 전문가, 언론사 기자 등의 전문적 미디어 분야의 진출을 연계하고 있다.		
한국 고전문학	주요내용	고전문학은 오랜 역사 속에 아직도 살아 있는 국어고전문학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20세기 이전까지의 문학작품, 나아가 20세기 이전의 모든 문자로 기록된 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한문학, 고전시가, 고전소설, 문화 등의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심화 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설 교과목	고전소설 읽기 고전문학 입문 고전작가론	고전시가의 이해 고전소설의 이해 고전명작의 세계	설화와 민속의 이해 한국한문학의 이해 고전비평과 삶의 지평
	관련 전문분야	한국고전문학은 고전문학의 현대적 활용 및 동아시아적 지평에서의 비교문학 연구를 목표로 학계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심도 있는 학문 연구에 정진하면서 학자로서의 학문적 진로를 열어 두고 있다. 또한 인문 분야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일반 기업체로 진출하는 등의 다양한 진로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한국 현대문학	주요내용	현대문학은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시대의 문학을 연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시와 소설 같은 전통적인 범주의 문학작품만이 아니라 영화나 디지털 매체 등 다양한 대중문화 현상들 까지도 모두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글쓰기 능력의 재고, 한국문학을 넘어선 세계문학과와의 관계, 문학을 통한 문화 양상 등 문학 전반에 대한 심화 지식을 배양할 수 있다.		
	개설 교과목	한국문학의 이해 현대문학의 이해 현대작가론 현대회곡의 이론 현대비평 이론 현대비평 읽기	현대시 읽기 현대시의 이론 시 쓰기 이론과 실제 현대소설 읽기 현대소설의 이론 소설 쓰기 이론과 실제	아동문학 읽기 아동문학의 이론 청소년문학의 이해 동화창작론 비교문학의 이해
	관련 전문분야	한국현대문학은 실용적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시, 소설, 평론 분야의 전통적 분야는 물론 드라마 작가, 구성 작가, 시나리오 작가 등으로 학생들이 등단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진로를 열어 두고 있다. 한국학 연구소, 방송국, 출판사 등의 진로 또한 포함되어 있다.		

주요 학과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학술 답사	2박 3일 동안 답사를 통해 한국어문학의 현장성과 생동성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공필수 과목으로 운영한다.	매년 1학기
방언 답사	방언(지역어, 사투리)에 관련한 ‘방언의 이해’교과목 이수 시 방언관련 조사 답사를 실시한다.	매년 2학기
학술제 ‘어울림’	매년 한글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학생 주도의 한국어문학과 학술제로 전 국문인이 어우러지는 축제이기도 하다.	매년 한글날 전일

교수진 소개

성명	전공
안명철	한국어학
장윤희	한국어학
한성우	한국어학
최윤지	한국어학
강동호	한국현대문학
원종찬	한국현대문학
김동식	한국현대문학
정종현	한국현대문학
박혜숙	한국고전문학

한국어문학과 진로탐색 이야기

한국어문학은 인문학의 기본이자 기초학문으로, 그 자체로의 심화와 타 학문과의 융합과 조화가 쉽다는 것이 큰 매력입니다.

한국어문학에 대한 부정적이고 좁은 시선에서 벗어나, 21세기 세계와 대한민국을 품고 새로운 세상을 개척할 수 있길 바랍니다.



| 복수전공, 연계전공 제도로 다양한 학문에 도전

2개 학위 취득이 가능한 복수전공, 연계전공 제도로 다양한 학문을 도전하고, 한국어문학과 융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융합공학'등 학문간 융합 교과과정인 연계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경영학'등 타 학과 복수전공으로 여러분의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한국어문학

언어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언어, 심리, 의학의 융합
언어재활사(치료사)

실용 글쓰기 능력과
올바른 한국어 사용
방송 언론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교육 콘텐츠 개발
국어교육자

한국어문학의 심도 있는 이해와 연구
국어국문학자

한국어의 창의적이고 독창적 활용
광고 카피라이터 및 네이미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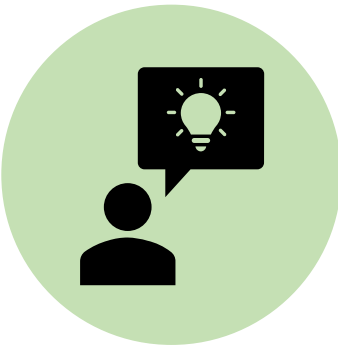
대한민국 인문인재
일반 기업체 취업

신춘문에 등단과 문학 창작
전문 문학인



| 평생교육사 과정 및 다양한 더배움(비교과)프로그램

교내 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 2급, 3급 자격증이 있으며 외국어, 독서, 해외탐방, 취업 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더배움(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하의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 학생 설계 전공으로 나만의 전공을 개척

학생이 스스로 전공 과정을 개설하고 학교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인하대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전공 과정을 학생이 스스로 필요한 수업을 선택해 설계하고 들을 수 있는 학생 1인 맞춤형 전공 제도입니다.



| 대학원 진학

학부 졸업 후 한국어문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한국어문학 학자의 길을 걸거나,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상담심리 대학원에 진학하여 언어재활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문학과 학생활동 소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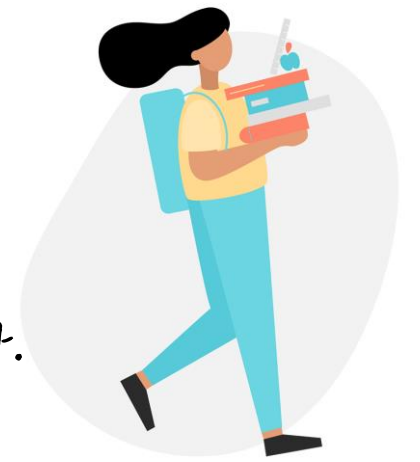
한국어문학과 학생회 집행부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전공 지식을 넘어 민주 사회 시민으로서 성장하며 학생 중심의 학과 운영과 사업 진행으로 학교 생활의 행복을 더합니다.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경험을 쌓고

진취적인 미래사회 핵심인재로 성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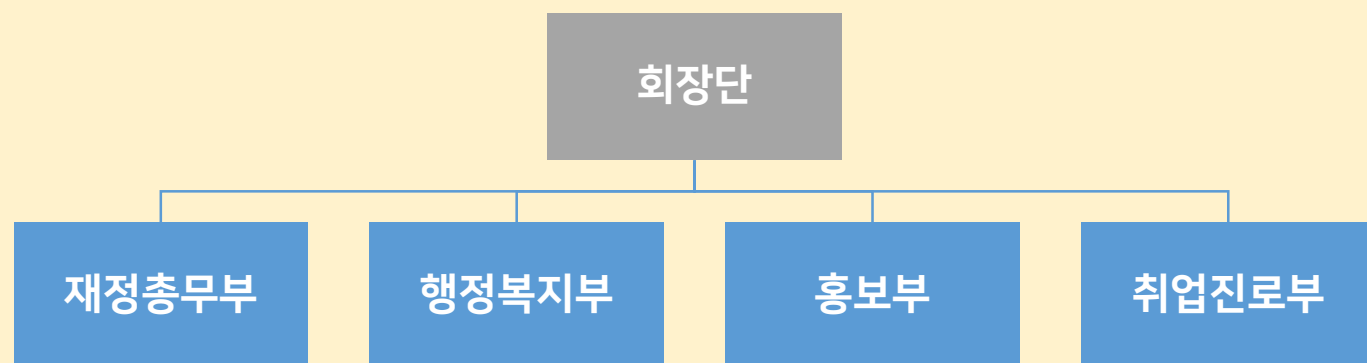
학생 자치 활동



| 한국어문학과 학생회 집행부

학생회 집행부는 학과 학생들의 자치활동 기구로 학생 활동과 학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기구입니다. 2020년 제34대 한국어문학과 학생회 집행부는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학생회가 되기 위해 학생 중심의 사업을 기획, 진행하고 학생 만족을 위해 봉사하는 등 각종 학생 주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제 34대 한국어문학과 학생회 집행부 조직도



| 개강총회, 종강총회

매 학기 시작과 끝을 알리는 '총회'는 한국어문학과 전체 학생이 모여 한 학기의 학생회 업무를 보고, 의결하고 뒤돌이를 통해 화합을 다지는 행사입니다.



| 간식 드림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지친 학우들을 응원하기 위해 맛있는 간식을 증정하는 행사입니다. 학우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간식이 제공됩니다.



| 학술제 주최

매년 한글날을 기념하여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학생들의 학술 교류와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문인의 밤 행사를 통해 화합을 도모합니다.



| 각종 복지사업 실시

학생회실에 휴지, 충전기, 컴퓨터 등 복지물품을 구비, 관리하고 의약품, 위생용품을 비치해 학생 복지에 기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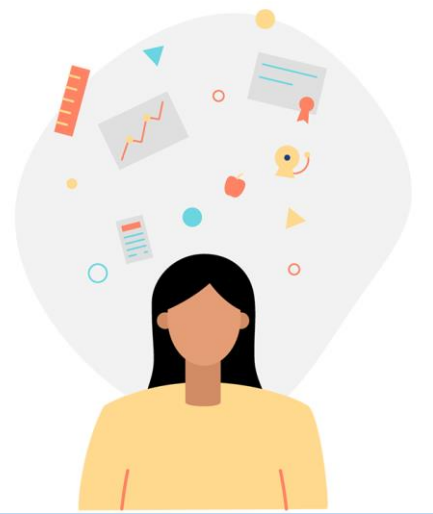
한국어문학과 학생활동 소개 2

한국어문학과 학회

학생 중심의 학회활동으로 전공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전공 지식을 발견, 실천, 응용함으로써 한국어문학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학생 스스로 한국어학의 세계를

탐험하며 창조적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한국어문학과 학회



| 현대소설 창작학회 '황토'

황토는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소설 창작 학회입니다.
1987년 국어국문학과 산하 학회『소설반』으로 활동 시작하여, 1995년 소모임『황토』로 이름을 개칭하였습니다.



| 시 창작 및 비평학회 '청하'

시를 창작하고 비평하는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회입니다.
총 27권의 작품집을 발간했습니다.



| 한국어 연구학회 '또바기'

또바기는 '언어로 읽는 인간, 사회, 문화'를 표어로, '어학은 문법이다'라는 편협하고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실생활 속의 한국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한국어학 연구와 세미나, 학회 인스타그램 계정(@inhattobagi) 운영, 어학계열 공모전 참가, 국어문화활동, 방학특별활동 등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 문화비평학회 '문화살롱'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회로서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웹툰, 영화, 트렌드 등 문화 전반을 다루는 비평 학회입니다. 학기 중에는 비평 활동을, 방학 중에는 비평 이론을 공부하는 활동을 주로 합니다.



| 어쿠스틱 밴드학회 '꽃내음'

꽃내음은 한국어문학과에 속해 있는 어쿠스틱 밴드 소모임입니다.
기타와 베이스, 키보드, 젬베 그리고 보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 년에 두 번 이상의 버스킹을 기획하고 준비합니다.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학우 뿐 아니라 좋아하고 배우고 싶다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 축구모임학회 'FC국문'

축구를 목적으로 학반, 학년, 성별 구분없이 모두가 어우러져 즐겁게 운동하는 스포츠 학회입니다. 매주 운동을 통해 체력증진 및 친목 도모를 하고 있으며 매 학기 문과대학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문학과 재학생 이야기 1

한국어문학과 학생들은 한국어문학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학생들이 말하는 한국어문학과 장점은 무엇일까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한국어문학과 19학번 김성민

Q1. 한국어문학과 장점을 설명해 준다면?

A1. 체계적인 강의 커리큘럼 [★★★★★]

본격적으로 한국어문학과 전공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체계적인 강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한국어학, 한국고전문학, 한국현대문학, 한국학 등 세부적으로 그 분야가 나누어져 있고, 각 분야에 대한 전공강의의 공급 또한 풍부하여, 본인이 흥미 있는 전공에 대해 마음껏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과 관련된 응용 내용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강의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배울 것이 매우 많고,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 수강하는 전공 기초 강의도 기본적으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바탕 지식과 이해가 갖추어져 있어야 수업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A2. 진출 분야 및 높은 활용도 [★★★★★]

한국어문학과에서는 학문의 기초가 되는 모국어와 문학,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연계 전공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 졸업 후, 출판, 교육, 방송 관련 종사자, 전문 문학인, 기업 등 여러 분야에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전공에 따라 자연스럽게 맞춤법과 언어 표현에 대해 자세하게 배우다 보니, 보고서나 소논문, 자기소개서 등 글을 쓸 일이 많은 대학교에서 메리트가 많습니다!

A3. 다양한 학회 및 학술답사 [★★★★★]

고등학교 때 교실에 앉아 책으로만 접한 내용을 현장에서 공부해볼 수 있는 학술답사를 갑니다. 백문불여일견! 2박 3일 동안, 현장에서 직접 관련 지식을 학습하여,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학우분들과 함께 학술답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어문학과 학생으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는 경험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학 입문'이라는 전공 기초 과목 시간과 국문인의 밤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여러 직군에 계시는 학과 선배님들을 뵙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학과 내에 다양한 학회들이 갖추어져 있어, 좋은 선후배분들과 함께,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2. 성민학생은 한국어문학과를 통해 어떤 미래를 꿈꾸나요?

A1.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작품을 창작하고 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독립 출판물'을 출판하는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된 '출판업계 종사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어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출판업계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교열을 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학과 관련된 전공 수업을 위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편집부나 홍보부처럼 특정 부서 내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편집 과정을 총괄하는 총 책임편집자를 꿈꾸고 있어, 컴퓨터 그래픽 자격증이나 관련 마케팅공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문학과 재학생 이야기 2

한국어문학과 19학번 허진

| 수업 후기

1학년에 주로 배우는 이해 과목들과 의사소통 영어, 글쓰기와 토론 그리고 1학년 필수인 학술답사와 한국어문학입문 과목들은 꽤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강의들이었습니다. 막상 대학생이 되었지만,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전 정말 스스로 해야 하는 막막한 1학년들에게 대학의 전반적인 강의들을 맛 보여주고,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 대한 감을 잡게 해주며, 우리 학과를 비롯하여 다른 학과 학우들과의 교류까지 마련해줍니다.

그리고 교양 강의지만 남는 것이 많습니다. 가령 제가 1학년 1학기에 들었던 '문화학의 이해'는 지금도 다양한 과목에 도움이 됩니다. 또, 1학년 2학기에 들었던 '글쓰기와 토론'에서 배운 레포트 작성법, 소논문 작성법, 각주 다는 법은 앞으로 20년은 더 쓸 수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1학년 때 배운 수업들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 학과 만족도

저는 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보자면 1. 교수진이 좋다, 2. 학회가 다양하다, 3. 잘 굴러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교수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능력 있고 이름있는 분들이 교수로 있으니 원들 안 좋을까 싶습니다. 과 특성상 고등 과정 이상의 심화 과정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물론 모든 과가 그렇겠지만), 이해하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점이 참 좋습니다. 또, 과 학생들을 꽤나 꼼꼼히 살피십니다. 저는 대학 와서 교수님과 친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편하게 대해 주셔서 저 또한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둘째로 학회가 다양합니다. 시를 쓸 수도 있고,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어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비평을 할 수도 있고, 노래를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우리 과에 온 사람이라면 분명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이어져 온 학회들이 배출한 동문 또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성함을 볼 때면 저도 자랑스러워집니다.

셋째, 학생회의 과 사업 및 행사 추진에 대한 학우분들의 피드백이 잘 수용되고, 학생회 또한 다시 양질의 학교생활을 위해 더 높은 퀄리티의 행사를 추진합니다. 여기서 '잘 굴러간다.'는 것은 이런 걸 뜻합니다. 교수님들 또한 학과 행사 참여에 적극적입니다. 행사의 대부분이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 학교 만족도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애교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 그저 그런 상태로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입학 후, 다양한 동기들과 선배들을 만났고, 학생회 활동을 했고,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러한 점이 학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나름 변화가인 후문이 있고, 또 다른 변화가인 구월동과도 가깝다는 점에서 지리적으로도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은 애교심이 조금 생긴 상태입니다. 앞으로 학교를 더 다닐 것이고, 다니면서 학교의 장점들을 더 발견하면 애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됩니다.

| 진로 설계 과정

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총 2년 동안 글쓰기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또 책 읽는 것을 좋아하여 다독상을 받기도 하였고, 늘 국어 과목만 1등급을 맞았던 소위 '국어킬러'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문과로 진로를 설계하였습니다.

국어 과목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고, 글쓰기 대회 등에도 참여하였고, 다른 과목들과 국어 과목을 연계하여 보고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국어 하나만으로 먹고 살겠다는 열정이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등학생 시절만큼 열정 넘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국어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무한한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국문과 진학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글을 썼기 때문에, 막연히 작가를 꿈꿨었습니다. 하지만 인하대학교에 진학 후 다양한 영역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출판사에 들어가서 출판편집자로 일하거나, 방송국에서 방송 작가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둘 다 전공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공지식을 공부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비 신입생을 위한 2020년 한국어문학과 입시이야기

인하대학교의 인재선발 과정을 마치고 한국어문학과에서의 공부를 시작한
선배들이 예비 신입생을 위한 학과 입학 정보를 안내합니다.
여러분들께 우리의 경험이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로의 앞날을 밝히는
밝은 등불이 되길 희망합니다.

1. 학생부종합전형

2. 학생부교과전형

3. 논술우수자 전형

※ 한국어문학과 입시이야기는 학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입시 과정 후기이며 인하대학교의 인재선발
과정의 특정한 기준, 정답 등을 안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학생부종합전형

질문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미래인재 전형으로 최초 합격해 한국어문학과에 입학한 20학번 유예지입니다.

질문 2) 한국어문학과에 온 이유

중학교 2학년에 영화 ‘동주’를 보고 막연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한국 문학에 대해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고,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문학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학을 생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최종적으로는 한국 문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혁에 기여하는 작가가 되고 싶기에 국어학과 한국 문학을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한국어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입학 전형을 준비했던 전반적 과정 설명

비교과도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교과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 2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1학년 때는 3.2등급이었고, 2학년 때는 2.7등급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3학년이 돼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이기 때문에 성적이 낮다는 변명은 아무 데서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3학년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1학기 중간, 기말고사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반에 등교해서 아침 자습에 참여했습니다. 야간 자율 학습은 하루도 빼먹지 않았고, 주말에는 도서관 열람실에 가서 온종일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3학년 1학기를 1.73등급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인하대식 산출 내신 2.4등급으로 인하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여름 방학부터 쓰기 시작할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수능 준비와 생활 기록부 정리를 동시에 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적을 내용과 아닌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고, 활동을 통해 간단히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 놓아야 해요. 꼭!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진로 희망,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세부능력 특기 사항,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이 쓰고자 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을 뽑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자기소개서 전체의 스토리텔링에 문제가 생겨 나중에 몇 번이고 갈아엎을 수밖에 없습니다.ㅠㅠ) 예를 들어, 저는 자기소개서의 전체 주제를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이다.’로 잡아 1번 항목에서 수학을 수학적으로 해석한 경험, 그리고 미술 작품과 문학을 연결 지어 발표했던 경험, 현대 시 작품을 반영론적, 표현론적 관점에서 다시 해석했던 경험을 들어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번 항목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른 이와 서로의 의견을 비판하고 수용한 토론 동아리 활동, 여러 지역의 학생과 만나 서로 의견을 맞추어 가며 문학 잡지를 만든 경험을 예시로 들어 작가에게 성찰적 태도는 가치관을 고수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이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저의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며,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이라는 자기소개서의 전체 주제와도 부합합니다. 그리고 3번 항목에서 모든 대상 앞에 ‘진정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생각해보는 습관을 독서를 통해 기를 수 있었다는 말로 글을 시작해 장애인을 다뤘던 소설의 장면을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했던 경험에 대입함으로 얻었던 깨달음을 서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동정하는 존재가 아닌 공생하는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생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번! 저는 자기소개서 중에 그 어떤 항목보다 4번 항목에서 저의 열정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하대학교 자기소개서의 4번 항목은 ‘희망 전공에 지원한 동기와 준비 과정을 기술하라.’였습니다. 1,000자 이내가 생각보다 짧아서 압축하고, 압축해서 영양가 있는 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번 항목에서도 전체 주제에 부합할 수 있게 방탄소년단의 예시를 들며 그들의 한국어 가사, 문학적 서사와 세계관은 문학이 더 이상 인쇄문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더불어 제가 한국 어문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형태로 재생산되는 문학의 유동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작가가 그 일을 담당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말을 지원 동기로 적었습니다. 또한 준비과정에는 쓰고는 싶었지만 다른 항목에는 미처 넣지 못했던 활동을 나열하며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고, 여러 문화의 고유성을 배우기 위한 다양한 도전을 해왔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컨설팅 학원을 따로 다닌 적도, 돈을 내고 자기소개서를 대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처음 쓸 땐 정말 힘들 거예요.

ㅠㅠ 저도 이런 종류의 글을 써본 적이 없던 터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학교 선생님께 첨삭을 받으며 글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글에 자신의 열정을 가득가득 드러낼 것, 막힐 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것, 어렵지 않은 문장으로 최대한 진정성 있게 자신을 소개할 것!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모두모두 파이팅,,,!

질문 4) 입학 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점, 어려웠던 점(극복 포함)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면서 ‘모든 일을 성실하게, 진정성 있게 끝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활동에 임했습니다.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다짐이었습니다. 작은 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 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변했거나,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면 그 활동은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교내 백일장, 진로 탐색 발표 대회같이 전공 관련된 활동이 아니더라도 제가 성실히 참여하면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과학 시화대회, 발명품 아이디어 경진대회, 과학 체험활동 보고서 대회,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만화 그리기 대회와 같이 전공과 관련 없어 보이는 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 작은 것이라도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훨씬 수월하게 쓸 수 있어요. 저는 플래너에 무언가를 통해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다면 한 줄이라도 적어 봤어요.

질문 5) 입시 전형을 준비하는 예비 신입생들에게 주는 조언, 팁(전형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효과성, 효율성을 위한 조언)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배짱으로 준비하는 전형이다.’ 모든 일이 시원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만큼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들여 준비한 비교과를 순순히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때가 되면 본인이 쌓아 놓은 탑을 탁 쳐서 무너뜨릴 줄 아는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면접에서의 성공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당부하지만 지원 전공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과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은 합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차 서류전형에 통과해도 면접 가면 결국 학과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다 들리고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일정이 수능 이후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수능 전에 면접 준비는 제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고 예상 질문을 적어 놓는 정도로 가볍게 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정시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저는 수능 한 달 전부터는 사회탐구 2과목에 국,영, 수보다 더 많은 투자를 했어요. 아무래도 사회탐구 영역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다 보니까 저는 이 시기에 10점 넘게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후에 미친 듯이 면접 준비에만 몰두했어요. 전에 몇 개 정리해 놓은 예상 질문을 포함해서 거의 100개의 예상 질문을 뽑아 놓고, 적절한 답변 찾으면서 머릿속에 그 질문과 답변 자체를 넣으려고 계속 암기했습니다. 또, 학교 선생님들께서 봐주시는 모의 면접도 시간 날 때마다 봤습니다. 다행히 준비를 많이 해 자신감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볼 수 있어 모든 질문에 답변을 다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면접에 가서 느낀 것은 ‘단순히 면접 질문과 답변을 암기하고 당황하는 기색 없이 말하고 오면 면접에서 성공할 수 있구나!’가 아니었어요. 면접은 학생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보다 학생을 ‘확인’하려는 속성이 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활동이 정말 내가 한 것이 맞는지, 자기소개서를 온전히 내 힘으로 썼는지, 전공에 대한 열정이 학생의 태도에서 얼마나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전체 질문의 9할을 차지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면접을 총 2번 봤는데, 봤던 두 곳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당황스러운 질문은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윤동주 시인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시를 외워보라고 하셔서 면접관 두 분 앞에서 ‘쉽게 씌여진 시’ 전문을 외우고 왔습니다. 이런 질문들 때문에 저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장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희망 전공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가 면접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면접 가서 너무 떨지 말고 자기가 이 학교, 이 학과에 오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을 편하게 말하고 오시면 돼요! 파이팅!

1. 학생부종합전형

질문 6) 고등학교 3학년 생활에 있어서 힘들었던 점과 극복 과정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건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막연함에서 오는 불안감이었던 것 같아요. 자꾸만 떠오르는 여러 걱정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반 친구들과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나 중식, 석식 시간에 잘생기고, 예쁜 아이돌 영상을 보고 눈 호강한 다음 다시 공부하고를 반복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오로지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수학을 집중력이 가장 떨어질 밥 먹고 난 후 혹은 하루의 가장 마지막 일정으로 넣어 놔어요! 자신의 신체 리듬을 파악하는 것도 수험생활에서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내 주변의 환경을 맞추는 것이 이 불안함의 극복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질문 7) 고등학교 3학년 생활에 있어서 예비 신입생들에게 주는 조언, 팁 (생활 관리, 마인드 관리 등)

3학년 1학기에는 그나마 덜하겠지만,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2학기 개학을 하면 자기소개서 준비와 생활기록부 마감 등으로 학교가 많이 어수선해질 거예요. 저희 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했던 학생이 많아서 분위기가 더 어지러웠어요. 그 사이에서 마음을 다잡고 수시와 정시 모두를 준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1차 합/불 결과가 수능 전에 나오는 학교도 있다 보니까 하나둘 반 친구들의 결과를 알게 되면 멘탈이 정말 많이 흔들려요. 하루는 ‘당연히 합격하겠지.’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하루는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불안함을 이겨내는 사람이 진정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승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수시 원서 6개 중 2개 학교에 최초 합격 했는데, 합격한 두 곳이 가장 늦게 발표되는 학교들이었어요. 그래서 수능 전에 4개가 연달아 떨어지는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건 제가 왜 떨어졌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거의 1점을 낮게 쓴 학교에 1차 불합을 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생활기록부에 문제가 있는 건가, 자기소개서에 문제가 있는 건가? 끊임없이 제 기록을 검토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그 학교가 원하던 인재상과 제가 맞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서를 학교에 대해 정말 많이 알아보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1지망이었던 인하대학교에 대해서는 학과 인재상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공부했었는데,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1지망 학교에 합격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지원할 학교 홈페이지와 학과 홈페이지를 꼼꼼히 보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어떤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지, 학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걸.’ 하는 후회가 남더라고요. 꼭 신중히 선택하셔서 저처럼 후회하지 않길 바라요!

21학번이 되실 신입생 여러분! 요새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으시죠?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못하면 누가해!’라는 마인드로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웃는 얼굴로 내년에 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 고삼 파이팅!

질문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20학번 정현수입니다! 재수를 해서 21살 신입생입니다. 고3 때 쓴 종합전형은 모두 불합격했지만 재수 때는 모든 종합전형에 최초 합격했습니다. 실패를 해봤고 다수의 면접, 자기소개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2) 한국어문학과에 온 이유

어린 시절부터 책에 파묻혀 살며 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교시절 국어과목을 배우며 한글의 체계, 문학 등에 큰 흥미를 느꼈고 국어라는 학문 자체를 더 자세히 배워 향후 교수나 사교육/공교육 국어 선생님, 작가 등 국어와 관련된 꿈을 지니고 있기에 한국어문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입학 전형을 준비했던 전반적 과정 설명

우선 저는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종합전형을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종합전형을 필두로 했고, 부수적으로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교과를 준비했습니다. 평소 교내대회와 봉사, 독서, 동아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했고 특히 ‘국어’와 관련된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종합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평소: 교내대회, 봉사, 독서, 비교과 활동 적극참여, 참여활동 느낀 점 문서파일로 매일 기록

-6~7월: 생활기록부 출력해서 점검, 자기소개서 쓸 소재 취사선택, 자기소개서 이론 공부(넵다 쓰는 것보단 이론 공부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각종 인터넷에서 정보 수집을 하였습니다.)

-8월: 학교에서 주최한 자기소개서 프로그램 참여 (+각종 인터넷, 시도교육청, 카페에서 조언 구하기)

-9월: 면접 준비 (+교내 프로그램 참여, 친구들과끼리 모여서 생활기록부 서로 보며 예상질문 뽑기, 인터넷 수험생 카페에서 예상질문 서로 뽑아 주기 활동)

실전 연습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친구, 학교 선생님 등 누구에게나 부탁해 면접 실전준비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 친한 동네 금은방 아저씨, 편의점 알바생 등 진짜 아무에게나 가서 연습했습니다.

질문 4) 입학 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점, 어려웠던 점

자기소개서 작성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학생을 판단하기엔 생활기록부도 도움이 되겠지만, 생활기록부는 그저 ‘기록’이자 ‘증거’일 뿐 나 자신을 제대로 드러내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1차적으론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했기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어려웠던 점>

-‘나 혼자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

: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혼자 다 해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섭고 걱정도 많이 되겠지만 대학은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수저로 떠 먹여주길 바라는 자세는 지양해야 합니다. 대학에 가는 것, 합격을 바라는 것도 나이기 때문에 노력해야하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이론 이해하기

: 제가 고3 때 저지른 실수입니다. 자기소개서, 면접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두가지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실전에 임한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는데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화장 할 때 아이라이너가 뭔지, 립스틱이 뭔지도 모르고 화장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책 구매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전 실제로 자기소개서 책 1권, 면접 책 2권을 구매해서 정독했습니다.

1. 학생부종합전형

-시간부족

이것도 고3 때 저지른 실수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과정에서 시간을 너무 끌어서 마감시간 직전까지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이 방법은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제출하기에 바빠서 자기소개서의 질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반면 재수할 땐 약 두 달 전부터 찬찬히 준비하니 훨씬 편안하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틈틈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5) 입시 전형을 준비하는 예비 신입생들에게 주는 조언, 팁 (전형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효과성, 효율성을 위한 조언)

1.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꿈과 관련된 최대한 다양한 활동 참여해보세요.

활동은 입시 과정에서 다양하게 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엮을 때는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만드는게 좋지만) 활동의 질과 양 모두 중요하긴 하지만 굳이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종합은 자기자랑이 아닌 자기가 노력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

고3 때 제가 모두 불합격한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를 말 하자면 자기소개서에서 그냥 자랑할만한 활동들 나열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 솔직해지기

수백명의 학생들 만나보신 교수님, 입학사정관님들은 거짓말 쉽게 눈치채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학생이라는 신분과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부풀려서 수준 높아 보이려고 애쓰는 것보다 솔직한게 더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시사례: 인하대학교 면접 볼 때 교수님-"초등학교때 블로그에 소설을 창작했다고 했는데, 아직 그 블로그를 운영 중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아니라고 답했고, "조금 커서 철든 후에 어릴 적 썼던 소설을 보니 너무 오글거리고 중2병 같아서 초기화를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이 의아할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저 말 하고 나서 '내가 미쳤나'싶었습니다. '중2병', '오글거리다'라는 어휘들이 바람직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해야할 표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 말로 인해 웃음을 유발할 수 있었고, 보다 편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으며 솔직한 이미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입학사정관님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3 때는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발벗고 정보를 찾는다면 학교에서 주는 것보다 훨씬 양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도교육청 무료 자기소개서 조언 프로그램, 학원학교 선생님, 인터넷 수험생 카페 등등)

5. 기록하기

비교과 활동 문서파일로 정리해두기가 중요합니다. 고교 3년 동안의 기억을 세부적으로 모두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그때그때 느낀 점, 활동 한 이유, 내가 맡은 역할 등 핵심 내용을 기록해두세요. 또한 여러분이 작성하신 독서록도 전체를 전부 기억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독서록도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 전에 총정리 한 번 해두세요. 선생님께 독서록을 제출하기 전에 복사본 만들어서 따로 잘 보관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알맹이 만들기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혹은 나를 마지막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히든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핵심적 활동을 하나 이상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전 이 알맹이(핵심활동)가 없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7. 무조건 튀려고 하지 말기

이건 아직 쿠키가 익지도 않았는데 위에 초콜릿 장식을 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단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이 제대로 갖춰진 후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무언가를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고3때 아직 자기소개서도 다 안 썼고 지원할 대학도 아직 안 정했으면서 면접 볼 때 할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튀어 보일지 고민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8. 자신의 생각보다 종합전형 준비하는 친구들 중엔 나보다 잘난 친구들이 많다.

질문 6) 고등학교 3학년 생활에 있어서 힘들었던 점과 극복 과정

평소 걱정이 많고 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가끔 의심이 듭니다. 이 생각이 들 때 주변인들에게 내가 잘하고 있는게 맞나 확인 받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이게 도가 지나치면 멘탈 관리에 무척 안 좋습니다. 자기자신을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안과 걱정은 다 지나갑니다.(고3 때와 재수할 때 진짜 힘들었고 맨날 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질문 7) 고등학교 3학년 생활에 있어서 예비 신입생들에게 주는 조언, 팁 (생활 관리, 마인드 관리 등)

1. 남과 비교하지 말자 (예시: 켄 저렇게 높은 대학이 6지망인데.. 난 이런 대학이 1지망이네..)

2. 미리 할수록 좋다. :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3. 언행을 조심하자: 내가 어떤 대학을 지원했고 누가 어떤 대학을 지원했는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험기간, 대학 입시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여러분께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1. 학생부종합전형

질문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 입학하게 된 20학번 이수정입니다.
저는 일반고에서 학교장추천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질문 2) 한국어문학과에 온 이유

문학 작품에 관심이 많고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을 직접 가보는 것이 문학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임을 깨닫고 한국어문학과에서 할 수 있는 문학기행을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입학 전형을 준비했던 전반적 과정 설명

학교장추천 전형은 다른 수시 전형과는 다르게 수능 성적과 면접 없이 서류 100%로 내신(교과), 학교생활기록부(비교과), 자기소개서만 반영됩니다. 그렇기에 학교 생활(대회, 동아리, 봉사 등 여러 활동들)을 열심히 하여 생활기록부를 채우되, 내신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질문 4) 입학 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점, 어려웠던 점(극복 포함)

면접에 자신이 없어서 면접이 없는 전형을 준비했지만 그렇게 되면 입학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소개서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더 꼼꼼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고3 여름방학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제출할 때까지 대략 2달 동안 수백번의 검토를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점점 수능이 다가오는데 수능에만 집중하지 못해서 불안감이 컸었습니다.
이를 그나마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자습시간과 점심시간, 야자 1교시에만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수능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는 시간과 수능공부를 하는 시간을 배분하면 심리적으로도 편안해지고 오로지 그 시간에 그 일에만 몰두할 수 있기에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질문 5) 입시 전형을 준비하는 예비 신입생들에게 주는 조언, 팁(전형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효과성, 효율성을 위한 조언)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교과 시험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적절히 시간을 분배해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가했던 교내 활동에서의 자료, 소감 등을 모아두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2달 정도 매일 쓰고 고쳤지만 시간이 많이 모자라기도 하고 수능공부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기소개서를 더 일찍 쓰기 시작하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때는 고2 겨울방학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고3 여름방학때부터 쓰기 시작해야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번 검토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다른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도 봐주시기 때문에 더 늦게 쓰기 시작하면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 입시 자료집을 찾아보고 다양한 전형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입시 자료집을 찾아보고 인하대학교에 학교장추천전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 학교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책자들을 잘 읽어보고, 특히 대학입시박람회 같은 곳도 방문해서 정보를 아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질문 6) 고등학교 3학년 생활에 있어서 힘들었던 점과 극복 과정

보통 1,2,3학년 학기 당 중간, 기말고사 성적이 모두 들어가기에 매번 내신 시험을 볼 때마다 매우 긴장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서 '이번 성적이 안 좋아도 다음 시험에서 성적이 상승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또 나름대로의 강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 긴장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문 7) 고등학교 3학년 생활에 있어서 예비 신입생들에게 주는 조언, 팁 (생활 관리, 마인드 관리 등)

주변 친구들에게 휩쓸리거나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는 밤새서 공부하니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무리하게 따라하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기도 하고 각자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2. 학생부교과전형

질문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 재학 중인 19학번 김성민입니다.

저는 2019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꿈꿔왔던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전공 수업을 듣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알차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수기가 많이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를 목표로 수험생활을 보내고 있는 수험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2) 한국어문학과에 온 이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3년 동안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와 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편집하여 독립출판물을 발간하는 과정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출판계열 종사자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가와 함께 문학작품에 대해 논의하고 맞춤법을 검열하는 출판 편집자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학과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심층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어문학과’를 ‘희망 학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입학 전형을 준비했던 전반적 과정 설명

저는 사실 처음 인하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학생부 교과를 준비하기에는 내신점수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합전형의 필수 관문이었던 ‘면접’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하던 저에게 담임선생님께서서는 인하대학교는 수능 최저기준이 걸려있어 이를 충족시키면, 교과 전형으로도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종합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 방향을 바꾸어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과 수능 최저기준이 기본적으로 입시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신과 모의고사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모의고사는 내신에 반영되지 않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모의고사를 공부하면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을 쉽게 익힐 수 있어 수능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의 경우도 평소에는 내신을 위주로 공부했지만, 모의고사 일주일 전부터는 실제 모의고사 시험시간에 맞추어 문제를 풀며 모의고사 준비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교과성적만을 100% 반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출결과 봉사활동까지 입시성적에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공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출결이나 봉사활동 등도 놓치지 않고 교내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한 것이 입시 준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결은 학생이 얼마나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임했는지 보여주는 척도이므로, 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매 수업에 결석하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봉사 활동의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찾아 참여했습니다. 보통 수험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능 공부에 집중하느라 봉사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봉사 활동의 지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질문 4) 입학 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점, 어려웠던 점(극복 포함)

인하대학교 입시 당시, 교과 전형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수능 최저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나야 하는 모의고사의 시험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고, 모의고사의 전반적인 성격도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에서 인하대의 수능 최저기준인 3과목 등급 합 7 이상이라는 성적을 받아보지 못했던 제가 실전 수능에서 최저기준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수능 한달 전’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하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는 수능 실전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한 연습을 했습니다. 수능 한달 전부터는 수능 시간표와 똑같이 오전에는 국어와 수학을, 오후에는 영어와 사회탐구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또,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문을 분석하는 문제를 풀기보다는, 실제 시험시간에 맞춰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있는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시간을 재면서 공부하며, 문항별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OMR카드는 언제 표기하는게 효율적인지 등 저만의 요령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 수능에서는 훨씬 편안한 상태에서 덜 긴장된 상태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수능 한달 전’이라는 시간을 ‘조급함’으로 보내기보다는, 수능 실전을 위한 적응기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5) 입시 전형을 준비하는 예비 신입생들에게 주는 조언, 팁(전형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효과성, 효율성을 위한 조언)

교과 전형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기준은 바로 ‘학년별 가중치’입니다. 내신이 가장 기본적인 평가 기준이 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년별로 내신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신 성적이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중치가 높아지는 기준을 제시한 대학에, 내신 성적이 하강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중치가 낮아지는 기준을 제시한 대학의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입시 전형을 준비하는데 있어 효율적입니다. 또한 학년별 가중치를 두지 않고 전 학년을 통틀어 100% 반영하는 학교도 존재합니다.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학년별 가중치를 두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내신 성적은 상승세를 보여야 지원할 대학의 폭이 넓어진다는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좋은 내신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제로도 인하대학교를 포함하여 교과 전형을 준비한 모든 대학교가 20:40:40으로 2, 3학년의 내신반영 비율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입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훨씬 수월했습니다.

질문 6) 고등학교 3학년 생활에 있어서 힘들었던 점과 극복 과정

저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깨어 있는 생활 습관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적응하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형의 구분에 상관없이 내신은 입시 성적의 기본이 되는 채점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저는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도 많았고, 수업 내용을 놓치게 되어 1학년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수면 시간을 새벽 1시로 정확히 정해두고 오전 7시에 일어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공부 시간을 위해 수면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잠을 자야 할 시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모든 시험은 오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아침에 학교에 도착하면, 가벼운 수학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전날 새벽에 미처 끝나치지 못한 공부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문제를 풀었고, 나중에는 이런 습관이 몸에 익숙해져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내신은 수업을 가르쳐 주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다른 문제를 풀기보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최대한 집중하는 것이, 내신 성적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7) 고등학교 3학년 생활에 있어서 예비 신입생들에게 주는 조언, 팁 (생활 관리, 마인드 관리 등)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고 희망학과를 미리 결정하는 일이 생활기록부를 준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활기록부는 정시와 논술을 제외한 모든 입시 전형의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또한 생활기록부는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고등학교 3년을 생활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잘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희망 학과’라는 구체적인 토대를 세워놓게 된다면, 그에 맞는 동아리나 봉사 활동을 찾아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관과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본인만의 생활기록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어문학과’라는 뚜렷한 목표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교내 활동에 있어서 더 많은 기회들을 접할 수 있었고,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장 나태해지는 시기는 종합전형 1차 결과가 발표 난 직후입니다. 저 역시도 친구들의 합격 소식에 마음이 덩달아 긴장되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고, 주변에서 2차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수능 공부를 아예 놓아버리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에서는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전형에서도 합격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어느 한 전형에 집중하여 모든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하루에 면접을 준비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나머지 시간은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이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모두를 준비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질문 8)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미래의 새내기들에게!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있어 가장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수능 최저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봤던 모의고사에서 한번도 원하던 대학교의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할 만한 성적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능 직전까지 공부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 결과, 수능에서 바라던 대학교의 수능 최저기준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수능 전까지 성실하게 공부한다면, 수학능력시험 결과는 결코 수험생분들의 노력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2. 학생부교과전형

질문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2020년 교과전형으로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 입학한 20학번 박초희입니다. 저는 출판 편집자라는 꿈을 갖고 인하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20학번이지만 앞으로 인하대학교에서 그 꿈을 펼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질문 2) 한국어문학과에 온 이유

저는 늘 책과 국어를 좋아했습니다. 공부를 하느라 지칠 때면 책 속의 구절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고 책은 제게 글자 이상의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책과 국어를 깊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원서를 넣을 때 고민 없이 한국어문학과에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3) 입학 전형을 준비했던 전반적 과정 설명

교과전형은 아무래도 수능대비와 내신대비를 모두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 수능 대비와 내신 대비는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능특강과 기출문제들로 예습을 하였고 학교에서 진도를 나갈 때엔 수능개념에 디테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준비를 할 때에도, 내신 시험 중 고난도 문제를 풀 때에도 다른 친구들보다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4) 입학 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점, 어려웠던 점(극복 포함)

제가 가장 집중했던 것과 어려웠던 점 모두 지구력이었습니다.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고 피곤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보면 볼 수록 체력이 부족해 피곤과 짜증이 느는 데에 비해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1학년이 끝난 후엔 너무 힘이 들어 학업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수험은 마라톤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학년 때부터는 생활패턴을 고정시켰습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습관을 버리고 자투리시간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간자율학습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과 공부시간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할 땐 열심히 집중하고 쉴 땐 열심히 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활패턴이 고정되니 더 오래 길게 집중할 수 있었고 성적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휴식과 정해진 공부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지구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5) 입시 전형을 준비하는 예비 신입생들에게 주는 조언, 팁 (전형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효과성, 효율성을 위한 조언)

수험생활을 하며 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저는 원래 종합전형을 준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인 학생이었고 생활기록부 또한 교내에서 손에 꼽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은 많았고 결국 저는 종합전형으로 넣은 모든 대학을 떨어지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준비해오던 내신과 최저공부 덕분에 인하대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한가지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고 긴 수험생활과 다양한 전형에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원서 접수 전까지는 자신이 목표로 할 전형을 정했더라도 다른 전형들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지는 담임선생님도, 입시 전문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질문 6) 고등학교 3학년 생활에 있어서 힘들었던 점과 극복 과정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지침과 시간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교별로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자기소개서도 작성해야했고, 수능공부와 마지막 내신 대비도 준비해야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많다 보니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생활을 위해 저는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제한 시간을 두었습니다. 방학 때엔 1순위로 자기소개서 준비를, 2순위로 수능 공부를 하였습니다. 개학을 한 후엔 1순위에 수능 공부를 놓는 등 때에 맞게 그리고 진행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순위대로 진행을 하되 일이 늘어지지 않도록 제한시간을 두어 그 시간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했던 데에는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플래너를 꾸준히 작성해왔기 때문에 계획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0순위는 건강관리였습니다. 적어도 석식을 먹고 30분 정도는 운동장을 걷는 데에 투자하는 등 틈틈이 체력관리에 힘썼고, 시간이 없더라도 인스턴트 음식은 피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바쁜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질문 7) 고등학교 3학년 생활에 있어서 예비 신입생들에게 주는 조언, 팁 (생활 관리, 마인드 관리 등)

저는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두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플래너 작성입니다. 플래너 작성을 할 때엔 예쁘게 꾸미고 장황하게 적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플래너에 작성한 내용들은 크게 기상시간, 해야 할 일, 타임테이블, 취침 시간입니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전날 혹은 아침에 학교에 오자마자 적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리 적어 두고 하루를 보내는 것과 그때그때 할 일을 떠올려 보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타임테이블을 그냥 작성하는 것이 아닌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터디 플래너를 남들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돌아보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몇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지 솔직하게 적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날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 지 반성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은 굉장히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끝없이 몰아치는 모의고사와 정말 많은 해야 할 일들에 지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이 끝나고 뒤를 돌아봤을 때 누구보다 뿌듯한 마음이 들고 별거 아니었다고 웃을 수 있을 겁니다. 후회 없는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3. 논술우수자전형

질문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20학번 한송희입니다. 반수를 준비하며 2020년도 수시-논술우수자전형을 통해 인하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지금은 1학년 과대로 활동 중이에요.

질문 2) 한국어문학과에 온 이유

적성과 진로에 있어 학창시절 때부터 고민이 많았는데요, 대입이 우선이었던 고3 당시 전공에 맞지 않은 과에 합격하여 한 학기를 보냈어요. 열정에 없던 수업을 듣고 한 학기를 다니며 적성에 맞는 과와 전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 반수를 준비했어요. 이전까지 대입과 학업에만 집중하느라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예전부터 문학과 창작에 관심 있던 저는 한국어문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입학 전형을 준비했던 전반적 과정 설명

고3에 들어서며 학원에서 논술 전형을 준비했고, 최저등급을 맞추기 위한 과목만을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공부했어요. 반수를 준비할 땐 최저등급 제한이 없는 학교들만 지원했기 때문에 별도로 수능 준비를 하지 않고 스스로 논술 준비를 했어요. 논술 준비는 일주일에 두 학교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시간과 시험 주의사항을 엄격히 지키며 최대한 실전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어요. 대학에서 주는 모범답안 및 합격자답안, 해제 및 풀이를 보며 논증 구조와 제시문 분석에 집중하여 첨삭하였어요.

질문 4) 입학 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점, 어려웠던 점(극복 포함)

앞서 말이 나왔지만, 논술에서 논증 구조와 제시문 분석은 아주 중요해요. 주장-근거 형식의 논증 구조는 글의 가독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해요. 그리고 제시문 분석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며 옳은 답을 써내도록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지키고자 노력하기도 했으며, 실수도 많이 나왔던 점이기도 해요.

논술 전형을 준비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제시문을 분석하는 일이었는데요. 논증 구조의 경우 올바른 첨삭을 받으며 모범답안을 참고하여 공부하면 금방 손에 익지만, 문제마다 출제자가 의도한 제시문을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논술전형의 특징을 이용하였어요. 여러 학교들의 문제를 풀다 보면 제시문과 주제가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여러 제시문이 하나의 주제와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 많이 풀어보고 많이 봐 두는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5) 입시 전형을 준비하는 예비 신입생들에게 주는 조언, 팁(전형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효과성, 효율성을 위한 조언)

인하대학교는 2020년도 이후 논술 유형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2019년도에도 인하대 논술을 준비했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의 유형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통된 조건이기에 인하대학교에서 제공한 하나의 예비 문제와 해설만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인하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논증 구조와 제시문 분석을 위해 모범답안의 모든 문장을 분석할 정도로 꼼꼼히 읽고 쓰기를 반복했어요. 실전 논술고사 때 배우고 연습했던 것을 토대로 논술을 쓰고 그 결과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또한 첨삭의 중요성도 알아야 합니다. 첨삭할 땐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력보다는 알맞은 논증 구조와 제시문 분석을 옳게 하였는지에 더 집중하는 편이 좋아요. 또, 다른 친구들 혹은 합격자 답안을 자신의 답안과 꼼꼼히 비교하고 첨삭하는 과정도 아주 중요해요. 성적표가 없는 논술을 가장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력과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보안할 점을 찾기에 좋아요.

논술은 '로또'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수시 전형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전형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시험 점수처럼 평소 자신의 실력과 합격 가능성을 객관화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모든 시험과 고사가 그렇듯 선택적으로 확실하게 집중하여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가 꼭 따라올 테니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예비 신입생들은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요!

질문 6) 고등학교 3학년 생활에 있어서 힘들었던 점과 극복 과정

저는 고등학교 3년 생활 중에서도 논술 전형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던 3학년 시절이 가장 힘들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논술 전형은 모의고사나 시험처럼 자신의 실력과 위치를 알 수 있는 객관화된 성적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불안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위험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전 '멘탈 잡기'와 '집중하기'가 우선이라 생각해서 정말 학원에서 살다시피 논술만 계속 쓰고, 학교에선 최저 맞춤 과목만 공부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신이 노력한 것들을 돌아보며 스스로 격려할 줄도 알고 잘할 거라고 믿는 어느 정도의 자기 최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만으로 빠지는 것과는 달라요. 그렇지만 자신이 보안할 점이나 고쳐야 할 부분은 잘 알고 교정하기에도 노력해야 해요. 전 고3 때 스스로에게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하며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던 고3 시기를 잘 극복해냈던 것 같아요.

질문 7) 고등학교 3학년 생활에 있어서 예비 신입생들에게 주는 조언, 팁 (생활 관리, 마인드 관리 등)

아마 지금 이걸 읽고 있는 학생들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요. 짧은 길든 앞으로 남은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 꼭 많은 정보를 접해 보라는 말을 해 주고 싶어요. 시험과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이 준비하는 입시 과정에 대한 많은 정보와 합격생들의 후기, 준비 과정을 꼼꼼히 살펴 보는 게 엄청난 팁이 될 거라 생각해요. 또 학교에서 직접 입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대학들이 많으니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인 결과 이루어 내실 수 있을 좋겠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자신의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요. 몸이 편안하고 건강해야 공부도 잘 되는 법이니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건강 잘 챙기시고 입시 준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3. 논술우수자전형

질문 1) 자기소개

저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2020년 수시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한국어문학과를 입학하게 된 20학번 조윤수입니다.

질문 2) 한국어문학과에 온 이유

원래 국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국어에 대해 흥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국어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니 공부를 하면서 여러 문학 작품들을 접하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고 기자나 작가 같은 글을 쓰는 직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다양한 문학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한국어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입학 전형을 준비했던 전반적 과정 설명

저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후부터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시 원서를 쓰기 전까지는 논술의 유형을 익히기 위해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 보았습니다. 수시 원서를 쓸 학교가 확실하게 정해진 뒤에는 제가 쓴 학교의 기출을 집중적으로 풀며 학교가 원하는 답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항상 답을 작성한 뒤에는 피드백을 받았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때까지 다시 쓰는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질문 4) 입학 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점, 어려웠던 점(극복 포함)

학교가 원하는 답을 제시하면서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성이 있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제시할 때 항상 활용하게 되는 제시문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제시문은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뜻을 지닌 다른 단어를 사용해 문장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이 없고 예시로 돌려 나오는 경우에는 예시를 일반화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 글을 쓰는 실력이 늘었다고 느꼈고, 어려운 어휘나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른 수험생들과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 5) 입시 전형을 준비하는 예비 신입생들에게 주는 조언, 팁 (전형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효과성, 효율성을 위한 조언)

대학 입시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이 원하는 답과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기출문제나 모의 논술 문제의 예시 답안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단을 어떤 기준으로 몇 번 나누었는지, 도표나 그래프를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해석했는지,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들 때 제시문을 얼마나 활용하였는지,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연결어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그 학교의 글쓰기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공식을 만들어서 글의 개요를 짜고 글쓰기를 시작한다면 적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인하대 논술은 2020년에 문제 출제 유형이 바뀌면서 중요도가 높아진 ‘제시문 이외의 근거를 들어 재반박하는 것’과 ‘도표와 그래프 자료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답안을 분석하고 글쓰기를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경되기 전의 문제보다 변경된 후의 문제가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인하대 논술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도표, 그래프 자료를 해석하는 것에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6) 고등학교 3학년 생활에 있어서 힘들었던 점과 극복 과정

어수선한 반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데 공부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도 저는 저의 할 일을 해야 했기에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이상의 시간을 채우도록 노력했습니다. 공부 시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던 시간들도 많이 줄일 수 있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7) 고등학교 3학년 생활에 있어서 예비 신입생들에게 주는 조언, 팁 (생활 관리, 마인드 관리 등)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 수면 시간을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늦은 시간에 자거나 밤을 새우는 습관은 생활 패턴을 망치고 다음날 공부하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수능 시간표를 따라 공부 계획을 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 컨설턴트와 같은 분들에게 상담을 받는 일이 많은데, 이분들의 말은 조언으로만 받아들이고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각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 논술 전형의 특성상 논술은 실력과 상관없이 운이라는 말이 많은데 그러한 말에 흔들리지 말고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3월
인하대학교 교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어문학과 오픈 카카오톡 개설

한국어문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예비 신입생들의 입시 궁금증 해소와 입시 안내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합니다.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하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2021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를 검색해주세요.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어문학과 캠퍼스 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5호관 남쪽 (5남)
233호 한국어문학과 학과 사무실 (032-860-7990)
066호 한국어문학과 학생회실

